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1. 16.(화) 11:00,
(지면) 2024. 1. 17.(수) 조간

배포 2024. 1. 16.(화) 06:00

해무가 언제 건힐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

- 국립해양조사원, 인공지능 기반의 해무 소산 예측 정보 서비스 개시

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(원장 김재철)은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(9곳*)에서 발생된 해무가 언제 건힐는지를 알 수 있는 ‘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’를 1월 17일(수)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.

* 인천항, 대산항, 평택·당진항, 군산항, 목포항, 여수항, 부산항, 울산항, 포항항

해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, 이는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. 이 때문에 선박의 입·출항, 화물의 선·하역 등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, 지금까지는 실시간 해무 관측 CCTV 영상만 제공되어 선사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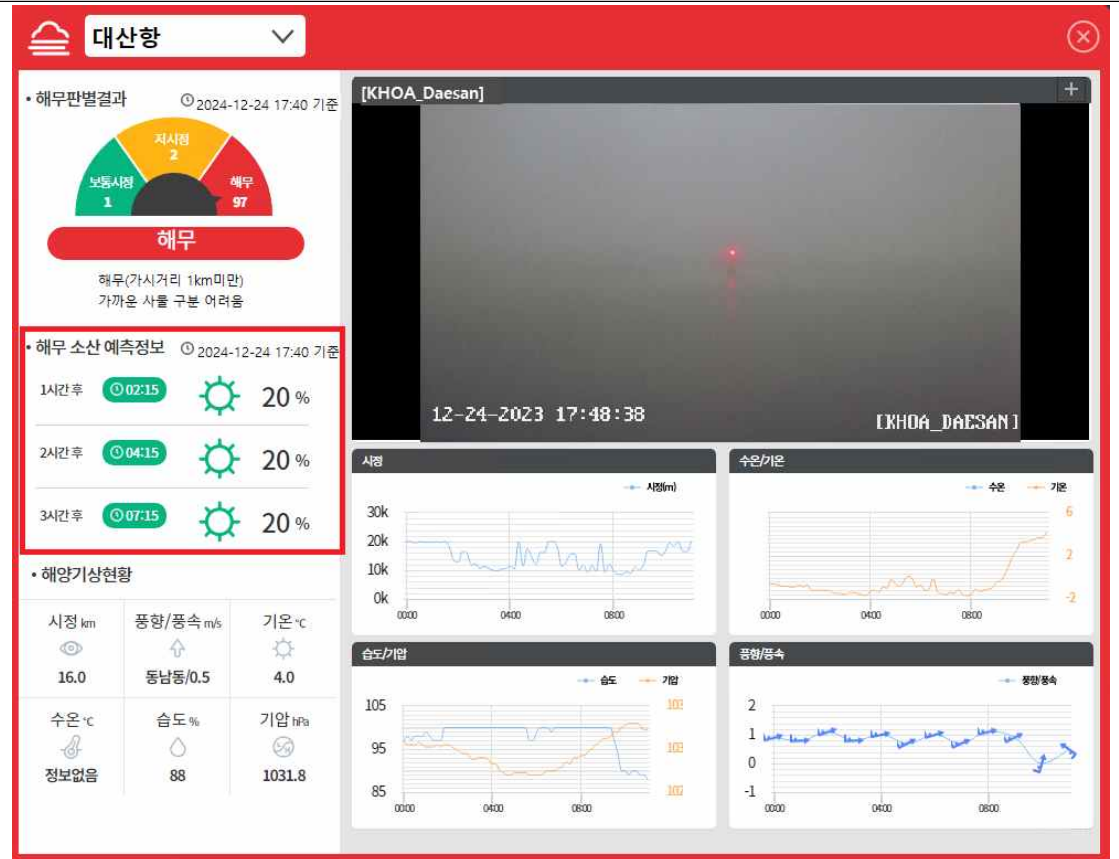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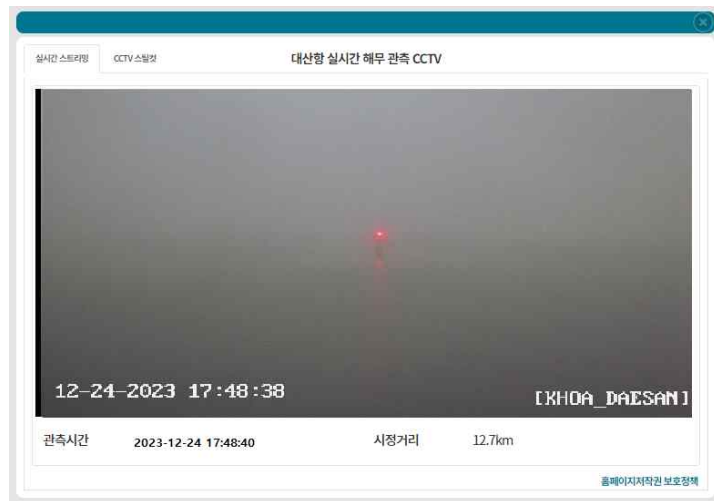
새롭게 개시되는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9개 무역항의 11개 지점에서 수온 및 기온과 같은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, 1, 2, 3시간 뒤 해무가 건힐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공한다. 아울러, 해양기상현황과 습도, 시정거리, 기압, 풍속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선사 등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시간 관리 및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(www.khoa.go.kr/oceanmap/pois/pois.do)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“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가 국내 선박 운항과 항만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	책임자	과 장	김정현 (051-400-4106)
		담당자	사무관	노재영 (051-400-438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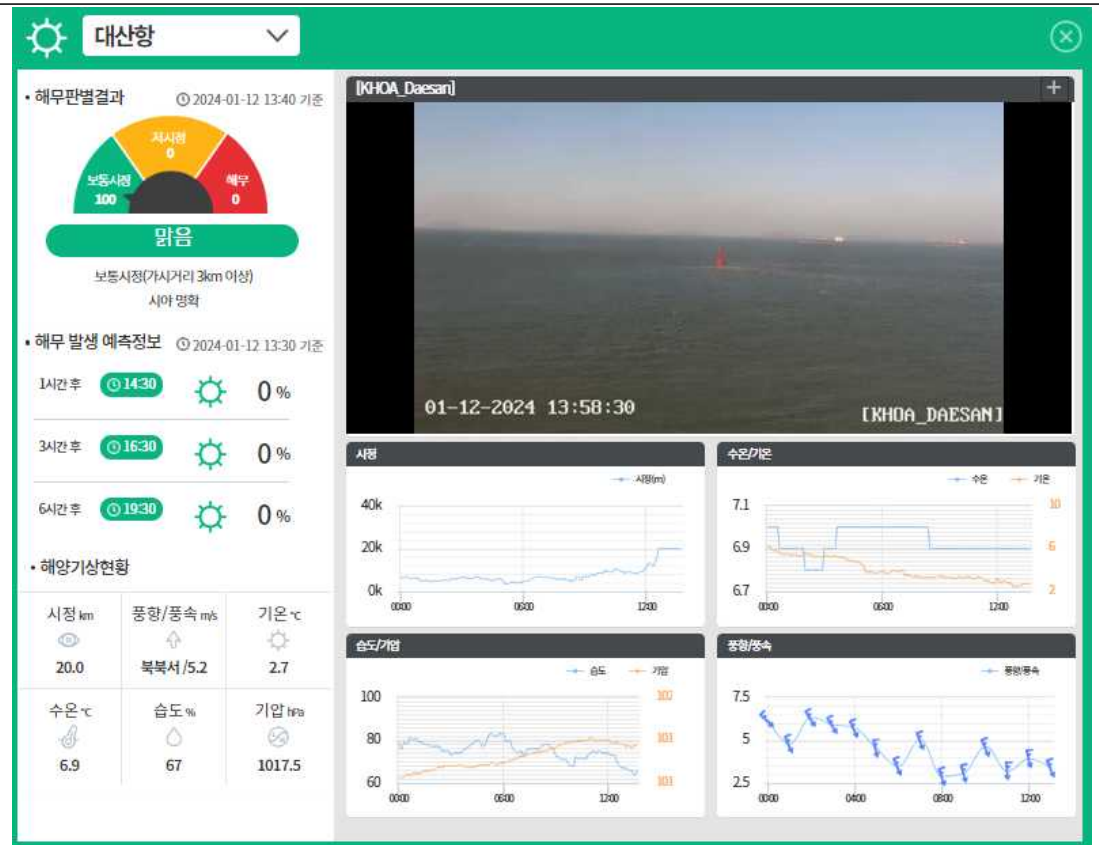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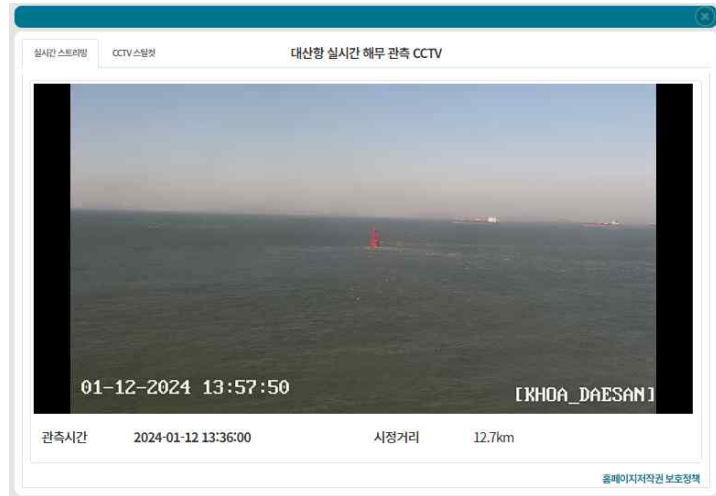
[해무가 발생했을 경우]



< 서비스 개시 전 >

< 서비스 개시 후 (해무 소산 예측 정보 표출) >

[해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]



< 서비스 개시 전 >

< 서비스 개시 후 (해무 발생 예측 정보 표출) >